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향화도 ↔ 송이도 새로운 뱃길 열렸다

영광군은 지난달 30일 계마항에서 하루 한차례 불매에 따라 출항 시간이 불규칙하게 운행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면서 불편이 많았던 송이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향화도 ↔ 송이도 구간 신규 여객선 취항식을 개최하고 정기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송이도 주민들은 육지에 볼 일이 있을 경우 하루 전날 나와 숙박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관광객들은 송이도에 들어가면 하룻밤을 보내고 나와야 하는 불편 때문에 방문을 꺼리는 곳이었다.

그러나, 향화도 ~ 송이도 구간에 신규 여객선이 1일 2회 운항하고 계마항 ~ 송이도 구간에 기존 여객선(섬사탕 16호, 정원120명)이 1일 1회 운항 하게 되면 해상 교통 편의 향상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송이도 주민들의 육지 1일 생활권 보장과 관광객 방문 증대로 해양관광

영광군, 계마항서 신규 여객선 취항식 개최 육지 1일 생활권 확보와 섬 관광활성화 기대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취항하는 칠산페리호는 정원 97명과 차량 18대를 수용할 수 있는 130톤 규모이며 여객선 운임은

기존 향로인 계마항 ~ 송이도 구간과 동일한 도서인 4,800원, 일반인 8,200원이다.

행사에 참여한 송이도 주민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육지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신규 여객선 운항에 노력해 주신 영광군과 해진해운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아름다운 섬 송이도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신규 운항으로 송이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송이도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송이도 해안관광도로 정비, 마을 생활개선 패키지 사업 등을 추진해 새로운 섬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이도는 몽돌해수욕장과 해양수산부의 진국 아름다운 섬 100선, 행정안전부의 휴가철 가고 싶은 섬 33선에 선정될 만큼 아름답고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농관원 장성사무소 개소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서비스 신속 제공

친환경·웰빙 시대에 발 맞춰 장성군 농산물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장성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장성사무소가 지난달 30일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 장성사무소 개소는 지역 주민의 20년 숙원이었다. 1998년 장성사무소가 담양·장성사무소 합병된 뒤부터 지역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은 장성사무소의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농관원 업무를 보려면 담양군을 찾아가 했던 데다 지역 실정에 걸맞은 밀착 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웰빙 시대를 맞아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만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관원 장성사무소를 다시 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립축산식품부의 정책 실행기

관인 농관원은 농산물 전반의 안전성과 품질을 검사 및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울러 친환경 축산물·유기식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지역별로 농업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생산하는 역할도 맡는다.

장성군은 농관원 장성사무소가 개소하면 지역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품질 농업인과 소비자, 농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농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은 군 자체 노력만으로는 단감, 사과, 배, 토마토, 딸기 등 지역 특산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장성사무소 개소를 바라는 지역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염원을 농식품부, 농관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해왔다.

장성=반정모 기자

고흥군, 유자 냉해 피해 정밀조사 착수

고흥군이 유자 동해피해 정밀조사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월말과 2월 초 -10℃ 이하로 11일 이상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어린 유목이 말라죽거나 20년 이상 성목도 황화현상(낙엽)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급년 유자 수확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해당유면 공무원, 이장, 피해농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시점에서 유지일 낙엽 및 주간부 절목부위 들뜸, 과일, 갈변, 고사 등 피해를 조사한다.

또한, 농가단위 피해율은 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 비율(피해면적×피해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유자 냉해피해 정밀조사에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 유자재배 면적은 554ha, 1,386 농가, 연간 144억 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작목으로, 군은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 할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보성군, 연중 청소년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

지난해 3200여 명 상담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홍경욱)는 지난달 29일 보성역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실시했다.

보성경찰서, 보성Wee센터, 보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폭력 등 비행행동을 방지하고, 발견시 긴

급구조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편의점, 마트, 청소년 유희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희환경 근절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며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 유희물품 판매금지 등을 안내했다.

홍경욱 센터장은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연중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보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성경찰서, Wee센터 등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협력하여 3,200여명을 대상으로 거리 상담을 실시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군, ‘나비대축제’ 관광객 편의 위해 주차장 정비



함평군은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주차장과 황소주차장 등 상시 주차장의 환경정

비를 실시한다.

주말과 휴일 등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함평천 제방에 굴삭기를 이용해 잡석을 평평하게 깔아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예비주차장과 주차가능 공간도 정비한다.

주요 지점 1백여 곳에 교통·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방침이다. 축제기간 내내 28곳에 주차장을

운영해 8천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20회를 맞는 나비축제를 즐기기 위해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는 ‘함평나비! 청년에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를 주제로 오는 4월27일부터 5월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구례매천도서관, 찾아가는 ‘그림책 읽어주는 할머니’ 자원봉사단 운영

6월 말까지 5개 유아기관 대상

구례매천도서관은 ‘호호! 이야기 선생님’ 동아리에서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구례어린이집 등 5개 유아기관을 대상으로 어른들이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호호! 이야기 선생님’ 동아리는 지난 2017년에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실시한 책놀이지도사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어르신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모임을 통해 명작그림책, 전래동화 등 좋은 그림책

을 서로 추천하고 연구하는 동아리로 활동 중이다.

매천도서관에서는 ‘찾아가는 그림책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단을 시책으로 추진하여 2018년 하반기에도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그림책 읽어주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천도서관에서는 그림책 동아리 신규 참여자 모집과 자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을 원하는 유아기관의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아 방문기관과 봉사자들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